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전YMCA / 전화 472-3399, 팩스 472-3769, <http://www.dreamymca.com>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

제 목 /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기자회견의 건

날 짜 / 2003. 4. 24.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대전,충남,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 대전충남, 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대전ymca에서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약칭 대전경륜장 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이들은 대전시가 최근 대전경륜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과 과포화상태에 이른 도박산업의 문제를 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경륜장 건립저지를 위해 오는 6월 대전시청 농성돌입을 비롯해 거리캠페인, 전국대책위 구성 등의 강도 높은 활동을 선언했다.

■ 또한 이들은 대전경륜장 문제에 대한 10문 10답을 통해, 우리나라 도박산업이 총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일본의 두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경륜장을 유치하기 이전에 도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적정공급계획부터 세울 것을 촉구했다.

■ 특히, 대전시가 그동안 경륜장을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고 주장하지만, 경륜장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베팅 비용이 55만 9천원에 이르고, 가족과 동행하는 고객은 5.9%밖에 안되고,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고객의 절반이 넘는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2006년 경륜장 개장 이후 5년간 매년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에 유일한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서울경륜장 겨울휴장 기간동안 1년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으며, 2006년 개장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에 경륜장과 경마장이, 경북청도에 우권장, 광주에 경륜장이 들어서게 되면, 예상대로 매출이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지역주민의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전 10만 명 등 수십만명의 도박중독자가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으며, 대전경륜장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 한편, 이번 대전경륜장 공대위에는 대전지역 22개 시민단체와 충남지역 2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충북지역의 경우 장외경마장 공대위가 꾸러지면 공대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적인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 이들은 창립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단체별로 거리캠페인과 현수막걸리 운동, 각계가 참여하는 릴레이선언, 사이버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유치신청을 문광부에 하게되는 6월까지 시의회 간담회와 정책워크숍 개최, 시민토론회, 문광부장관 면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주요이슈 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기자회견



하늘을 우리러한점부끄럼이없가를
앞세에 아는바람에도나는괴로워했다

대전 경륜장 건설반대에 즈음하여 충청지역 서사를 쓰다 이충재



일 시 / 2003년 4월 24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대전YMCA 4층 세미나실



인사말

참석자 소개

대전경륜장 경과보고

대전경륜장 문제점 10문 10답

창립선언문 낭독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nodobak.wo.to

대전경륜장 건설 경과보고

- 2000. 11 대전시 업무구상 보고서에 경륜장 건립 검토
- 2000. 12. 11 경륜장 반대 등 2001년 대전시정 10대 개혁 요구 대전연대 기자회견
- 2001. 8 대전시 사업구상 및 타경륜장 방문현황과약
- 2001. 10 대전시 구상안 수립
- 2001. 12 대전시 1차 영터리 여론유도 설문조사 실시
- 2001. 12. 12 대전연대 ‘대전시 영터리 설문조사’ 규탄 성명발표
- 2002. 8 대전시 타당성조사 용역
- 2002. 11 대전시 용역보고대회
- 2002. 11. 25 대전시,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보고에 즈음한 논평
- 2002. 12 대전시 대전경륜장 간담회 개최
- 2002. 12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륜장 시민의식조사 결과발표
- 2003. 1 대전시 1차 영터리 여론유도 인터넷 응답조사
- 2003. 1. 23 월평사이클 경기장 인근 아파트 단지 경륜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2003. 2 대전시 대전경륜장 토론회 개최
- 2003. 3. 7 대전시 1차 시정조정위원회
- 2003. 4.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장외 경정장 기습개장 규탄 성명
- 2003. 4. 4 대전시 2차 시정조정위원회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지부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관련규탄성명
- 2003. 4. 11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륜장 경제성 분석 기자회견
- 2003. 4. 12 대전경륜장 관련 정보공개요청(국민체육진흥국민공단)
- 2003. 4. 14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연합, 대전민언련, 유성민주자치연합, 홍사단, 여성환경포럼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지부, 4개시도 시민단체 등 반대성명
- 2003. 4. 15 염홍철 대전시장 기자회견통해 대전경륜장 건립추진 발표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규탄 성명
(가칭)대전경륜장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제안문 발송
상공회의소(김주일 회장) 환영논평
- 2003. 4. 16 체육관련 단체 공동 환영기자회견
- 2003. 4. 17 (가칭)대전경륜장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회의 개최
- 2003. 4. 22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개최
- 2003. 4. 24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창립기자회견

■ 대전경륜 도박장 10문 10답

질문 우리나라 도박장 실태는 어떤가?

1

① 경륜장 1인당 1일 평균 배팅비용 / 55만 9천원

- 2002년도 우리나라 도박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총매출 / 13조 9,396억원
※ 2001년보다 29.9% 늘어났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나 급성장
- 도박 참여인구 / 2,320만8천명(2001년대비 21.4% 성장)
- 총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 / 51.4%
※ 같은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 / 4조 717억원(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
- 1인당 1일 배팅비용 / 경륜은 55만9천원으로 카지노 다음으로 높음

<참고자료> 국내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배팅액 비교

	강원카지노	경 륜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만원)	224.9	55.9	47.0	27.9	0.41

② 2003년 3월 현재 도박장 현황 / 51개소 ¹⁾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2개소)	경기 과천, 제주
	장외발매소 (28개소)	강남, 광명, 광주, 구리, 논현, 대전, 마포, 부천, 부평, 분당, 서초, 신릉, 성동, 수원, 송인, 용산, 안산, 영등포, 의정부, 인천, 일산, 종량, 창동, 천호, 강북, 부산, 시흥, 대구
경 륜 장	경륜장(2개소)	서울, 창원
	장외발매소 (13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대전유성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3개소)	대전유성, 장안, 상봉
우 권 장		경북 청도
카 지 노		강원 정선

※ 앞으로 부산경륜장, 청도 우(牛)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 내에 70여개로 늘어날것으로 전망.

질문 도박장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2

2,3년 이내에 70개소 넘어설 듯

- 1)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경전운영본부 홈페이지 참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참조

- 각종 도박장 유치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 2)

- 대전시 / 1,200억원을 투입해 경륜장 건립추진
- 경기도 안산시 / 2006년 6월까지 모두 2600억원을 들여 시화호에 경정장 건립추진
- 인천시 / 경서동 서북부매립지 542만평중 32만평에 경마장 건설 추진
- 충북 제천시 / 110억원을 들여 청풍문화재단지 인근에 경견(競犬)장 건립추진
- 경북 청도군 / 우권장 건립완료 단계(우권법 올 1월에 국회통과)
- 강원도 태백시 / 광산의 대체산업으로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도입 추진
- 전남 화순군 /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경견장 조성추진
- 전남 진도군 / 2006년까지 조성될 진돗개공원 내에 경견장 설치계획
- 전남, 광주시 / 경륜장건립 추진, 피터지는 치열한 싸움
- 장외 경륜장 / 올해 창원경륜장이 동남부권에 1개소 개장예정
- 장외 경정장 / 올해 총 5개소 개장예정지 가운데 3개소 개장, 2개소 하반기 개장예정
- 장외 경마장 / 충북 청주, 대구, 마산 등 지방주요도시에 개장을 위해 접수받고 있음.

질문 대전시에서는 경륜장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고 하는데,
3 시민단체는 왜 사행시설이라고 주장할까?

①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틀비용이 55만9천원(2002년) 3)

-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틀비용이 55만9천원(2002년)
- 경륜장 고객가운데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 4)
반면에, 350만 이상 고소득자는 13.5%밖에 안됨

② 경륜장에 가족과 함께 가는 고객은 5.9% 밖에 안된다.

- 입장시 동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이나 친지와 가는 경우는 5.9%밖에 안됨.
혼자내지 친구와 간다는 응답이 83.5%나 됨.
- 경륜고객 가운데 월평균 입장횟수 비중을 보면, 1회에서 12회 가운데,
10회이상인 55.2% =>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하고 있음.

=> 도박중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박시설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행시설이다.

2) 각 일간지 보도내용 참조

3) 서천범, 『도박산업의 현주소와 지방정부의 과제』 한국레저문화연구소, 2003. 2

4) 이현근, 『한국 경륜 소비자 성향 및 서비스 만족도』 (박사학위논문), 2000. 8.

질문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300만명이나 된다는데 사실인가?

4

①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300만명으로 추산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보고서(2001년) 참조
-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도 2001년 10조로 추산 도박산업전체 매출액보다 많음.

② 대전시는 도박중독자 5) 치료를 위해 클리닉 운영한다지만, 성과의문

- 한국마사회, 경륜운영본부, 경륜경정본부 모두 클리닉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밖에 안돼, 성과 미비
- 단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02년 한국마사회 국감자료) 6)

③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대전시(예측)
도박중독자		2.6%	2.1%	9.3%	93,815명
문제도박자		1.3%	1.1%	5.5%	51,598명
병적도박자	1~1%	1.3%	1.0%	3.8%	43,217명

※ 도박중독자(93,815명) = 2001년 대전광역시 20세이상 인구(1,008,276명) × 9.3%

※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 고객유병률(병적도박자 / 고객수×100) 즉,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경륜이 33.3%로 가장 높으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

5) 한국마사회 2002년 국정감사 고진부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도박시설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에서는 경륜이 가장 높은 33.3%로 경마(2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한국마사회 200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에 대한 정부나 해당기관의 대책에 만족해 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도 지난 98년부터 서울 용산지점에 경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자가 계속늘고 있는데도, 상담실은 개장 초기에 26평 규모로 상담요원 한명과 운영보조 요원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의 경우, 경마중독을 국민보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치료위주의 위탁병원 1곳이 전부이고,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한 시설은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3곳에서 운영하는 자체상담소외에는 없으며, 전문치료를 받는 기관의 경우도 국립서울정신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위탁한 상태이며, 찾는 환자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도박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박중독자 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인구추계라 판단되며, 최소한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도박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또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기존 3곳에 이르는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대전경륜장 개장은 결국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대전시는 유념해야 한다.

질문 대전경륜장이 만들어지면, 대전시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 **5**

① 대전광역시 순수재정 수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레저세	408	523	513	636	649	780	825	965	1,054	1,202	3,449	4,106
지방교육세	245	314	308	382	390	468	495	579	632	721	2,070	2,464
지방체육진흥배분액	70	103	132	213	215	303	326	423	474	580	1,217	1,622
소 계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 대전시 순수재정 수입금 = 레저세 + 지방교육세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레저세 = 경주권매출액 × 10%

· 지방교육세 = 경주권매출액 × 6%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수익금(발매수득금(경주권매출액 - 환급금 - 제세) - 운영경비) × 60%

대전경륜장 운영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시가 얻는 순수재정 수입금은 2안일 경우 총 6,736억, 3안일 경우 8,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전경륜장 타당성 전망 용역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② 실현가능성 낮은 예측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다른 지역의 도박시설 추가 입지에 따른 고객 감소를 예상치 않고, 매출액을 산정하여 건립의 타당성을 조작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입이 들어온다해도 그만큼 지역민의 피해는 더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질문 대전경륜장에서 대전, 충남 주민들이 잃는 돈은 얼마나 될까?

6

- 대전충남 지역민 도박참여자 순 손실금 / 5년간 5,200억 ~ 9,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손실액(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6	9,002
손실액(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 대전충남 지역민 고객 손실액 = (경륜 총 매출 - 환급금) × 70%

※ 2003년 4월 1일 현재 도박시설은 전국에 총 51개소이나 앞으로 부산 경륜장, 경마장, 청도 우권장 등을 포함해 각종 장외 발매소가 지방도시에 개장하면 총 70여개소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대전경륜장 이용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경륜장을 이용하는 총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 시점 예측보다는 앞으로 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서 각각 50%,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총 고객 점유율 70%로 적용할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충남 지역민이 입는 총 손실액은 2안일 경우 7,286억원, 3안일 경우 9,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해도, 2안 5,201억원, 3안 6,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결과를 대전시가 얻는 순수 재정수익금과 비교해보면, 총 고객 점유율 70%를 적용하면 최소 550억원에서 8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총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할 경우, 1,535억에서 1,762억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비 감가상각비(5년간) 274억원,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질문 대전경륜장에 따른 충청권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7

① 충남,북 도민의 손실액(총 고객의 각각 10%일 경우)

- 2006년 이후 5년동안 / 1,039억에서 1,286억 손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대전경륜장 총매출	4,195	5,634	5,227	6,760	6,550	8,183	8,252	9,991	1조0,448	1조2,301	3조4,672	4조2,869
고객 10%일때	420	563	523	676	655	818	825	999	1,045	1,230	3,468	4,286
환급금(70%)	294	394	366	473	459	573	578	699	732	861	2,429	3,000
손실액(30%)	126	169	157	203	196	245	247	280	313	369	1,039	1,286

② 대전경륜장 건설비용 / 1,3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273.5

※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참조

③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대전시 성인인구 × 도박중독율(9.3%) × 1인당 비용(523,560)

※ 도박인구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산 = 10조(2001년 사회적 비용) ÷ 1,910만명(2001년 도박인구)

※ 대전시 인구증가율 1.5% 적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의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 합법적인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2,72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④ 대전경륜장 득실 비교분석(지역민 고객점유율 7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타손실 점유 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2	9,002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464.7	1,766.7	1,689.7	2,011.7	1,975.7	2,317.7	2,340.7	2,705.7	2,809.7	3,198.7	10,280.5	12,000.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3,544.5	-3,808.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7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1조280억원이었으며, 3안은 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3,545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3,809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 5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타손실 점유 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212.7	1,428.7	1,375.7	1,605.7	1,582.7	1,826.7	1,845.7	2,106.7	2,182.7	2,460.7	8,199.5	9,428.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1,463.5	-1,236.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5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8,199.5억원이었으며, 3안은 9,4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1,464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1,237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문 대전경륜장에 따른 지역자금 역외유출비용은 얼마나 될까?

8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국민체육진흥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청소년육성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산업발전기금	20	30	38	60	61	85	92	118	132	162	343	455
문화관광부장관사업	3	4	5	9	9	12	13	17	19	19	49	61
농어촌특별세	84	113	105	135	131	164	165	200	209	246	694	858
소 계	131	181	192	272	271	359	374	471	512	613	1,480	1,896

지역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안일 경우 1,48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안일 경우 이보다 많은 1,896억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전경륜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9 경륜장 이외의 대안은 없나?

① 재정난의 핵심인 지하철 건설·운영의 국가공단화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건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 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비 소요는 물론, 개통이후에도 매년 200-300억원의 막대한 순수운영 적자를 가져와 대전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요구한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② 국세위주 세수체계 개선, 새로운 지방세원 개발

질문 시민단체에서는 대전경륜장에 대해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10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지방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창원경륜장의 경우, 서울경륜장이 겨울 3개월동안 휴식기를 갖는기간에 1년 총 매출액의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대전시가 주장하듯이 대전경륜장 개장이후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런 지방세수 규모는 대전시의 희망이지,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경륜장은 서울과 창원 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경륜장의 경우,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업을 못하고 3개월정도 휴식기를 갖는데, 이 기간중에 창원경륜장이 거둬들이는 매출액은 1년 매출액의 50%넘는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유일한 실내경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창원경륜장 조차도, 수도권에 사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② 2006년이 되면, 대전경륜장과 같은 대형도박장이 권역별로 1개 이상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서울경륜장이 2005년 완공되고, 부산경륜장과 경마장이 영업에 들어가고, 광주경륜장과 경북청도 우권장까지 개장을 한다면, 기존 창원경륜장과 대전경륜장을 포함해 총 7개의 대형도박장을 각 권역별로 보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5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경륜,경마,경정 등의 장외발매소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 된다면, 도박시설간의 지역간 경쟁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대전경륜장의 수익성은 시의 예측보다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분야 관련 전문가들도, 권역별로 경륜장이 입지했을 때 경륜, 경정, 경마 등 선택이 폭이 커지는 수도권 주민들의 대전경륜장으로의 유입은 더더욱 어려워 진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이 예상처럼 매출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2010년에 300만명(경륜장 200만명, 장외도박시설 100만명)의 도박장을 이용하게된다면, 도박중독자 양산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설혹, 2010년에 2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입장한다 치더라도, 그렇게되면, 왜래 지역민들의 출입비율은 과도하게 높아져 10만명이 넘는 도박중독자 양산이나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또다른 주민손실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지방자치시대 10년의 역사가 부끄러울만큼 지나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부재로 말미암아 대전시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방의 크고작은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까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경륜장과 경마장 등 각종 도박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을 내걸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경륜장 개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여론을 외면한채 지난 14일 오후 12시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돈되는 일이라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온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싶은 자치단체장의 꿈수를 드러낸 사례이자,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해보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는 경륜장을 비롯해 경마장, 경정경, 카지노 등 51개에 이르는 각종 도박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경륜장·경마장, 청도우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내에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박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적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외국의 3~4배 많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도박산업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도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많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전국확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부화뇌동은 건전한 레저산업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공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실제로, 기존 창원경륜장이 서울경륜장 휴장기 3개월동안 1년 총매출의 50%를 차지할만큼 서울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전경륜장이 개장하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광명경륜장이 개장하고, 부산(경마,경륜,경정)과 광주(경륜), 경북청도(우권) 등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대형도박장이 들어서게되면, 기존 중소도시의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시장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경제성 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케 될 가능성마저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전경륜장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2010년 한해동안만도 최소 300만명의 고객이 입장해야만 하는 업종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대전,충남북 지역민들의 새로운도박 수요창출로 10만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및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적공급계획에 의한 건전레저산업 육성을 누차에 걸쳐서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여러차례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충남북 도민들의 경우, 대전경륜장 고객가운데 10%를 차지할 경우, 개장이후 5년간 각각 1,040억 ~ 1,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수손실이 유발되어, 대전경륜장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전충남북 어디에도 무분별한 경륜장 유치는 반대한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경륜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레저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용역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비용이 55만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유형별 조사에서도 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5.9%밖에 안되고, 월 입장횟수 12회 가운데 10회이상인 55.2%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시설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유치를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시민적 합의를 통해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대전시와 정부는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이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문화관광부는 도박시설의 추가공급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정당한 권면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와 이를 허가한 문화관광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4일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및 조직

▶ 가입단체 현황

- 대전지역 참여단체 현황(22개 단체)

개혁국민정당 대전광역시지부, 대전NCC,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기독교청년협의회, 대전
실업극복 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
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론,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민주노동
당대전광역시지부,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벤엘의집,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애국지사
숭모회, 여성해방연대, 유성민주자치연합, 전교조대전지부

- 충남지역 참여단체 현황(22개)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논산 YMCA, 당진참여자치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새로운태안을열어
가는군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 YMCA, 아산시민모
임, 연기시민회, 예산주민연대, 조치원YWCA, 천안 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포럼, 한국청년연합회천안
지부, 홍성YMCA

- 충북지역 참여단체 현황(1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현재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장외경마장 저지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
며, 추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입기로 결의된 상태임.

▶ 대전경륜장 공대위 조직

- 공동대표단 / 고종혁 목사(NCCK 회장)
 -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최교진(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 정순진(대전여민회 회장)
 - 박춘호(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
 - 학계(민교협)
 - 노영우(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대표자회의 / 참여단체별 파송대표로 구성
- 집행위원장 / 이충재 대전YMCA 사무총장

- 집행위원 단체 /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민언련, 대전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등
- 고 문
- 지도위원
- 사이버위원회 / 우희창 민언련 사무국장
- 홍보위원회 / 나영환 대전YMCA 이사
- 시민실천위원회 / 김경희 여민회 부회장
- 공익로비위원회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정책위원회 / 이은구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 경륜장 공대위 사업계획

1. 구성배경 및 목적

- ① 대전시는 시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전경륜장 추진하고 있으며,
- ②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 ③ 대중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통해 대전경륜장 건설 저지
- ④ 도박산업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시민적 공론형성을 통해 올바른 대안제시
- ⑤ 도박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단 및 관련법 개정 등 개입촉구

2. 사업의 기초

- ① 한시적 연대와 수평적 네트워크 활동
- ② 대전경륜장 전면중단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 ③ 문화관광부 등 정부차원의 도박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개입촉구
- ④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사업 전개

3. 대전경륜장 추진중단을 위한 사업과제

①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4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YMCA 4층

② 월별 사업계획

- 4월 / 각 기관별 현수막걸기 운동
릴레이션언운동(종교계, 여성계, 지식인, 학생 등 부문별 반대성명)
사이버시위(대전시청, 문광부, 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등)
도박산업 실태 및 대전경륜장 문제점 정책워크숍
대전경륜장 문제점 홍보물 배포

- 5월 / 대전경륜장 건립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 대전광역시의회 간담회 추진
 -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자전거캠페인(매주 1회)
 - 경륜장건립저지 거리서명운동(으능정이 등 매주 1회)
 - 도박산업 관련 전국대책위 구성(대전, 충북, 대구, 울산, 광주, 전남, 부산 등)

- 6월 / 문광부장관 항의방문
 - 대전시청 농성돌입
 - 대전경륜장건립저지 결의대회 개최